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후기

본 학회는 1996년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흥인호텔에서 1996년도 고분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올해로 설립 20주년이 되는 본 학회의 위치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특별한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마련되었다.

오후 2시에 등록을 시작해, 3시에 본 학회 회장인 이서봉 박사님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은영 박사님이 "21세기를 대비한 고분자 공업의 R & D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첫번째 주제 강연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 LG화학 기술연구원의 여종기 박사님이 "환경사업의 기회와 기술개발"이라는 제목의 두번째 주제 강연을 하였다. 이상 두 분의 주제 강연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고분자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들에 관한 문제점 제기과 그 해결 방안이 주된 내용으로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가장 적절히 부합되는 것이었다.

두 분의 주제 강연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이서봉 회장님의 사회로 참가하신 분 사이에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은 주제 강연자 두 분의 발표 내용과 그에 부연해 '산학연 협동방안'과 '교육강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중간에 저녁식사로 인한 30분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저녁 9시까지 매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기업체로부터는 환경문제와 같은 현재 고분자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피력과 이를 해결키 위한 학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다. 한편 학교와 출연연구소로부터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더욱 더 학연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시종일관 솔직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날 토의된 내용은 고분자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앞으로 고분자 분야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정리자는 토론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능한한 침묵없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한양대학교의 임승순 박사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성균관대학교 김진환〉



■ 참가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	두	환	단국대학교	유	영	출	동양나이론연구소
김	광	웅	KIST	이	관	영	금호석유화학
김	동	국	한양대학교	이	병	형	유공
김	상	혁	호남석유화학	이	서	봉	한국화학연구소
김	성	주	금호석유화학	이	해	방	한국화학연구소
김	성	철	KAIST	이	후	성	서강대학교
김	영	하	KIST	임	대	우	제일합섬
김	은	영	KIST	임	승	순	한양대학교
김	정	엽	KIST	정	동	진	대림산업
민	태	익	한화그룹종합연구소	정	진	철	포항공과대학교
심	홍	구	KAIST	진	정	일	고려대학교
여	중	기	력키	최	철	림	KIST

합계 24명

